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보 도 자 료 • 배포 : 2021. 11. 10.(수요일) ※ 분량 : 총 2매(본문 2매)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담당 부서	플랜트실	• 박래상 실장, 윤희준 연구원 • ☎ 031-389-6370, 6520	
보 도 일 시		• 11월 1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	

국토교통진흥원, 「수소 연료전지 주택·단지 건설기준」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-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공기관 분야 장려상 수상 -
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김종학 원장 직무대행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‘2021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(이하 경진대회)’에서 연구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한 ‘수소 연료전지 주택·단지 건설기준’이 공공분야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
- 이번 경진대회는 “보다 나은 정부”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기관 간 확산·공유하고, 성과를 대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었다.
- 정책기자단 평가를 통해 20건의 우수사례가 예선에서 선정되었고, 이 중 10건이 정책부서장 및 정책기자단 평가로 본선에 선정되어, 온라인 국민심사 및 전문가 심사로 진행된 결선에서 ‘수소 연료전지 주택·단지 건설기준’이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.
- ‘수소 연료전지 주택·단지 건설기준’은 국토교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‘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’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하여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건설에 필요한 국가건설기준을 제정하였고, 앞으로 수소 시범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다.

○ 수소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소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임과 더불어, 연료전지의 안전기준 및 배관적용의 표준화를 통해 해외 수출 발판 마련 등 모든 산업의 전방위적 연쇄 효과를 발생시켜 민간주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진흥원 플랜트실 박래상 실장은 “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과제를 활용하여 진행된 수소도시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”라며 “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공적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실 박래상 실장이 ‘2021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’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다.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건설기술연구, 플랜트연구, 도시건축연구, 국토공간정보연구, 교통물류연구, 철도기술연구, 항공안전기술개발 등), 건설·교통·물류 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등이 있다.